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 Kick-off 회의

---

# 모두 발언

---

2019. 10. 1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 1.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걸음 해주신  
핀테크 기업인,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해부터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혁신 부합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금융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고,  
지난 6월에는 규제개선 과제 150건을 수용하여,  
현재 법령개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 2. T/F 추진배경 및 당부말씀

---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 [①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먼저, 샌드박스를 통한  
일시적 규제특례 사례가 하나 둘 쌓이면서  
규제 자체가 불합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하여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 [②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다음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의 차이, 소비자의 성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공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T/F에서는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핀테크 현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핀테크 랩을 비롯한 핀테크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도  
현장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규제혁신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규제 자체도 최신화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개선되었던 규제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다시 한 번 바꿀 필요는 없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

### 3. 마무리 말씀

---

그간의 전통적 금융 환경 하에서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아왔습니다.

이처럼 기본적 리스크 관리에 충실함으로써,  
금융시장이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핵심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시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하여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른바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통해  
핀테크 금융혁신이  
더 많이 생겨나고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